

무안군, 내년 국도비 예산 증가로 지역 경제 활력

예산 5183억원 올해 대비 5.7% 증액 지역 특색 사업 발굴 예산 편성 성과 호남고속철 2단계 건설 SOC 사업 "편성 예산 신속 집행 총력 기울일 것"

무안군이 2025년 국도비 예산 5183억원을 확보해 올해보다 5.7% 높고 281억원 증액된 보조금을 확보했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따른 지방 교부세 감소, SOC 사업비 축소 등 지방재정 위기상황에서 이룬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군은 보조금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전담도와 관계 부처를 방문하고 지역구 서삼석 국회의원과 적극

적으로 협력해 이뤘다.

무안군이 확보한 주요 SOC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2692억원(총사업비 2조6921억원)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106억원(총사업비 492억원) △영산강IV지구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265억원(총사업비 9698억원) △무안 환경-해제 국도건설 59억원(총사업비 439억원) △무안 항공특화산단 진입도로 13억원(총사업비 260억원)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도리포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20억원(총사업비 1745억원)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 사업 12억원(총사업비 30억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0억원(총사업비 58억원) △목재오션타워 조성사업 2억원(총사업비 130억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5억원(총사업비 42억원)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9억원(총사업비 22억원) △일로농공단지 패키지 지원사업 11억원(총

사업비 60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및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 6억원(총사업비 21억원) 등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으로는 △무안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12억원(총사업비 497억원) △삼향 및 청계농공단지 하수관로 정비 사업 113억원(총사업비 188억원) △망운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41억원(총사업비 102억원) △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사업(송산마을) 16억원(총사업비 28억원) △남악 기후대응 도시숲조성 사업 15억원(총사업비 50억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도비가 반영됐다.

김산 군수는 "내년도 국도비 확보로 무안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돼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무안-김행민 기자



대수확은 담양쌀, 역대 최대 수출 프랑스·베트남 등 5개국에 300톤

담양의 '대수확은 담양쌀'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다.

15일 담양군에 따르면 올해 담양쌀은 프랑스, 베트남 등 5개국에 300톤이 수출됐다. 이는 2018년 개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실적이다.

올해 담양쌀은 지난 4월 프랑스 현지 유통업체인 에이스푸드와 연간 공급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베트남, 미국, 브라질, 체코 등에 공급을 시작했다.

지난달의 경우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한국인 임직원 식당으로 100톤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며 전년 129톤 대비 두 배 이상 오른 최고 실적을 견인했다.

이같은 수출 호실적은 지난 2022년 준공된 담양군통합RPC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인증을 획득하며 까다로운 유럽 농산물 통관절차에 적합하고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도정 설비를 갖춘 결과로 풀이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최근 한류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식이 세계적인 건강식으로 자리 잡은 요즘 이번 수출을 계기로 전 세계의 식탁으로 담양 농특산물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 봉사 활동 담양군 용면 복지기동대

담양군 용면 복지기동대(단장 임남숙)가 지난 2일부터 일주일간 지역 내 가스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 차단기 설치와 함께하는 가정 방문 활동을 펼쳤다.

15일 담양군에 따르면 용면 복지기동대는 고령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아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가정을 방문해 차단기 설치뿐 아니라 복지 상담도 진행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필요 사항을 듣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도움을 연결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복지기동대는 20여 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를 설치하고 10여 건의 복지 상담을 진행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 접수 영광군, 5인 이상 주민·단체 대상

영광군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다양화하고 마을 돌봄 문화를 형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2025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내년 1월 7일까지 모집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가며 살고 싶은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영광군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의 주민 모임 및 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씨앗 단계(소규모 공동체형), 새싹 단계(씨앗 단계 완료 공동체), 열매 단계(새싹 단계 완료 공동체)와 돌봄공동체이며 공동체 활동에 대한 재료비, 강사료, 홍보비, 공동체 시설개선 비용 등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전컨설팅을 거친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또는 일자리경제과(061-350-4694) 영광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061-351-8772)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지난 11일부터 화순 도곡농협 공선회에서 딸기를 공동 선별해 출하를 시작했다. 화순딸기는 지역 로컬푸드 35%, 대형마트 35%, 도매시장에 30% 비율로 출하될 예정이다. 화순군 제곱

화순군,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 본격 출하

화순군이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를 본격 출하했다.

15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도곡농협 공선회에서 화순 딸기를 공동 선별하기 시작했다.

매일 1톤 이상의 화순 딸기가 로컬푸드 35%, 이마트, 롯데마트 등 인근 대형마트에 35%, 도매시장·직거래에 30% 비율로 출하돼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올해 화순 딸기 출하는 육묘기인 5월부터 9월 정식까지 지속된 고온으로 전년 대비 꽃눈분화도 약 2주 늦어져 본격 출하 일정이 지연됐다.

육묘 과정 중 고온 피해로 모종의 고사율이 30% 이상으로 많았고 모종을 밭에 심은 후에도 고온에 의한 시들음병 발생이 증가해 전년 대비 올해 화순 딸기의 수확량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화순 딸기는 현재 화순군 31농가,

15.1ha 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화순 지역 농가들은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전력을 활용한 해충방제, 이산화탄소 별도 공급, 꾸준한 컨설팅 교육을 통한 재배 기술 향상 등의 노력과 GAP 인증을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류창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는 여름철 폭염과 늦가을까지 지속된 고온으로 농가들의 농작물 피해가 크다. 화순군은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시설 온도 저감, 효과적인 환경제어 방안 제시, 병해충 방제 등의 기술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운주사문화관, 아카데미 작품 '탐나는 첫걸음' 전시

2025년 1월19일까지

화순군은 내년 1월 19일까지 화순 군립 운주사 문화관에서 작품전 '탐나는 첫걸음'이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전시회는 화순 군립 운주사 문화관 제2전시실과 제3전시실에서 열리며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화순 군립 운주사 문화관 미술 아카데미 수업에서 탄생한 작품들을 모았다.

미술 아카데미는 △수채화 초급반 △수채화 중급반 △문인화반 △캘리그래피반으로 구성됐으며 수강생 28명이 이번 전시에 참여해 총 89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지역 미술 아카데미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이 예술적 여정을 떠나는 첫 발걸음을 기념하는 '탐나는 첫걸음'전은 미술의 다양한 가능성과 창의성의 경계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채화 작품은 특유의 투명성과 색의 번짐을 통해 감정과 분위기를 섬세하고 아름답게 전달한다. 문인화 작품은 동양화의 전통적인 기법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간결하게 담아냈다.

최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캘리그래피 작품은 글자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창출한다.

'탐나는 첫걸음'전은 화순 군립 운주사 문화관 미술 아카데미 수강생들의 미술 기법 탐구와 창의적인 실험이 담긴 작품들로 신선하고 놀라운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화순 군립 운주사 문화관은 매주 월요일 휴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관련 문의는 운주사 문화관(061-379-5893)으로 하면 된다. 화순-김선종 기자



유기견 입양 활성화 캠페인 담양군, 22일까지 청소년문화의집

담양군이 오는 22일까지 매주 주말 담양청소년문화의집(담양군 지침6길 29)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15일 담양군에 따르면 캠페인은 유기동물 자원봉사단 마드리나의 회원들이 주말 담양을 방문한 외부 관광객들에게 담양군 유기동물 입양센터의 유기견을 알리고 반려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동거를 위한 성숙한 반려인이 될 수 있도록 펫티켓 홍보를 진행한다.

앞서 유기동물 입양센터 홍보를 위해 진행한 사진전은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면 이번 캠페인은 보호견들 눈높이에서 만날 수 있게 실제 유기견 크기의 등신대로 제작해 전시한다.

담양군은 지난 2022년 담양군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를 개설해 운영하는 등 급증한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입양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사람은 동물등록,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의 검사와 수술비용 25만원 중 60%인 15만원까지 지원해 입양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담양-신재현 기자